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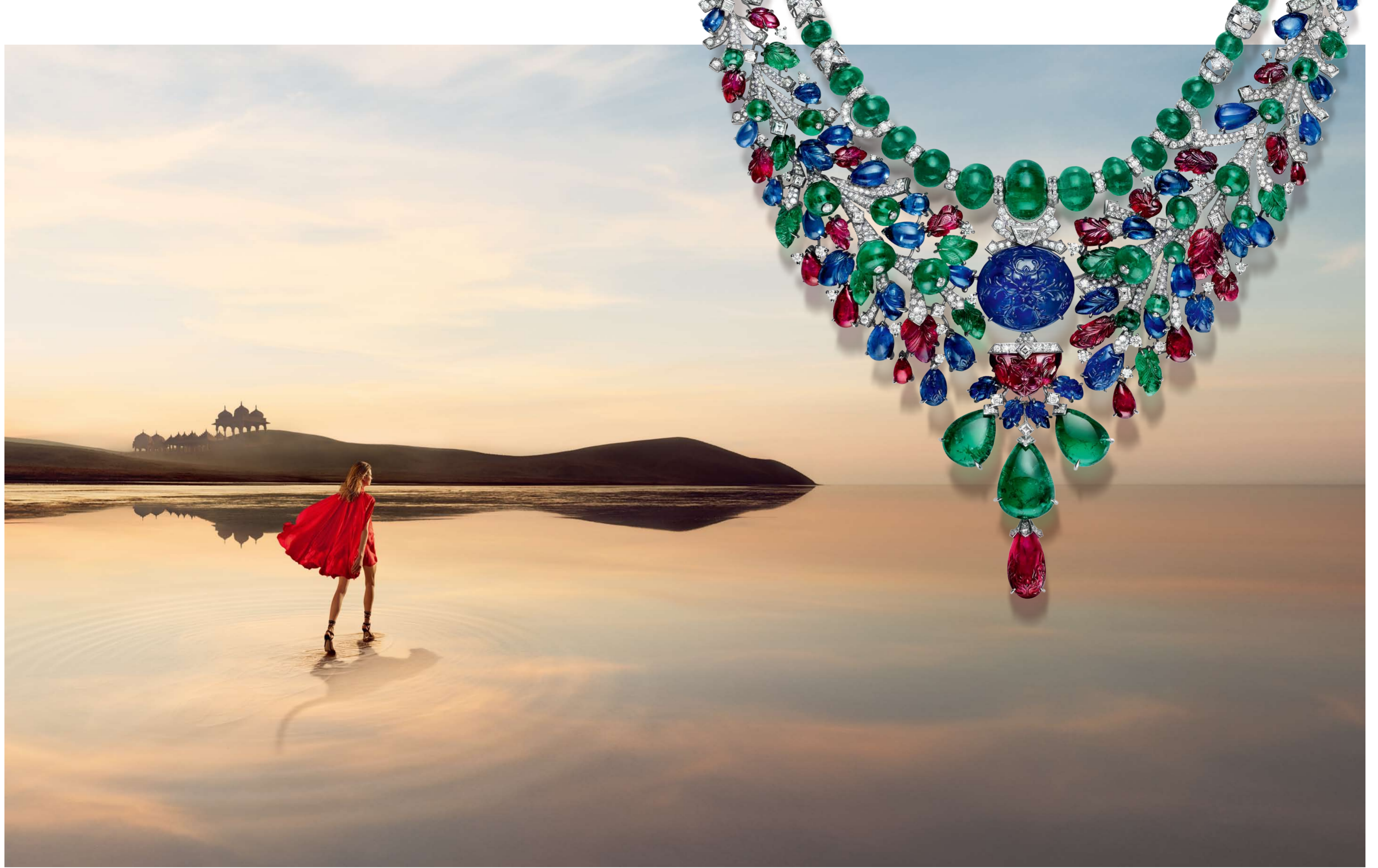
# Style

조선일보

AUGUST 2023  
vol.256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Cultural dialogues in the Cartier style

*Cartier*



## SUBLIMAGE LA CRÈME

피부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깨우는 궁극의 스킨케어

샤넬의 독자적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성분은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한 활성 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수블리마지 포뮬러는 피부에 활기를 되찾아주며,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 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된 피부를 느껴보세요.

\*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지표.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MERCURY



Ω  
OMEGA  
x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VENUS



Ω  
OMEGA  
x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바세른 콘스탄틴에서 페트리오니는 기술적 정교함과 미학적 새로움을 구현하는 컬렉션.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미학을 선사하는 셀프 와인딩 모델을 선보인다. 상세한 디테일을 통해 매종의 워치메이킹 본질을 우아하게 해석한 시계라 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22

16

18

12

- 13 **SUMMER SPLENDOR** 반짝이는 스웻글과 화려한 비즈 디테일의 패션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글램 서머 룩.
- 15 **BLACK CHIC** 강인함과 현대적인 시크함을 이루는 블랙 다이얼 워치 7.
- 16 **WRITE YOUR OWN CHAPTER!**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에도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념은 무수히 존재한다. 불과 1백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여성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대화의 빠른 물살 속에서도 편견을 딛고 자아실현을 한 선구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 18 **SPACE IN FOCUS** 이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지난해 가을 서울에 입성하면서 해외의 크고 작은 갤러리가 진출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페어든 갤러리든 미술 자本是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의 출현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오는 9월 초 예정된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워 서울을 찾은 갤러리 공간을 소개한다.
- 19 **CODE WHIT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컬러, 화이트.
- 20 **ODE TO LOVE**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을 위한 완벽한 페어 워치.
- 22 **ROMANTIC SCENES** 나와 내가 만나는 그녀는 때보다 더 로맨틱한 하루.
- 34 **THE ETERNAL NUMBER**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을 받아 그 형태의 아름다움과 하우스의 대담한 정신을 담아낸 컬렉션 N°5를 소개한다.
- 38 **ETERNAL LOVE** 가장 순수한 반짝임으로 표현한 영원의 징표이자 사랑의 사인을 지키는 완벽한 수호자, 다이아니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브라이덜 컬렉션.
- 39 **PASSION OF INFINITY** 신념을 가진 자를 이길 방도는 없다.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컬렉션을 풀어내는 마르코 드 빈첸초(Marco de Vincenzo)가 이끄는 에트로(ETRO)의 네 번째 컬렉션이 열렸다.
- 40 **LOVELY WALK** 편안함에 소녀 감성과 트렌디함 한 스펀을 더한 발레리나 슈즈.
- 41 **THE EDGE OF SHADE** 뜨거운 태양에 맞서는 가장 스타일리시한 방법.
- 42 **COOL STEPS** 더욱 클하고 편안한 발걸음을 위한 서머 맨 슈즈.
- 43 **ENJOY YOUR FLIGHT** 간편한 휴대성과 빠른 호기로 비행 전후 혹은 항공기 내에서의 뷰티 케어를 도울 아이템.
- 44 **SCENT EFFECT** 한 번의 터치로 확실한 기분 전환 효과를 선사하는 향 선택션.
- 45 **RED SOLUTION** 안티에이징의 첫 번째 솔루션이 되어줄 샤넬의 N°1 DE CHANEL 레드 케어라인이 세럼.
- 46 **EDITOR'S PICK** 더위에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여기, 솔루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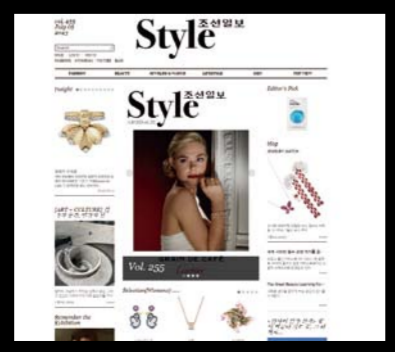
# Style 조선일보

Issue.256 August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세 | 타워타워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Astonishing orange





## 태양을 피하는 법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서머 햇 (왼쪽부터 시계 방향)로 선점 향제의 뒷부분 땀띠와 스트림으로 자유로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리피아 소재의 바이저 햇 7만 원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은은한 핑이나는 블랙 실크 테피터로 감싼 크라운에 클래식한 시그니처 로고를 더한 스트로 햇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정이 넓은 베이직 클로슈 햇에 브라운 컬러 FF 모티브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면과 레이온 혼방 소재 FF 클로슈 햇 1만 원 **비엔디**, 문의 02-544-1925 포토그래퍼 **김사윤** 인턴 에디터 **신정민**

## VOLVE AGAIN

1973년 옥조를 담은 모습에서 착안해 프랑스어로 옥조라는 뜻을 지닌 배누아(Baignoire)가 탄생했다. 그 후 오늘날 또 한번 진화한 배누아 컬렉션은 선보인다. 새로운 사이즈, 획기적인 비율 등으로 기존 균형감을 변화함과 동시에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주얼리이자 워터메이킹인 메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다 작은 사이즈로 선보이는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배누아 워터는 물론 기존 스톨 사이즈 모델에 베젤 및 브레슬릿에 변화를 주어 한층 더 화려하게 진화한 새로운 배누아 워터도 만나볼 수 있다. 그중 2.24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과 브레슬릿까지 파베 세팅한 가장 화려한 배누아 워터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선사한다. 문의 1877-4326



Jacob Sulton © Cartier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강렬하게, 우아하게

이번 시즌 샤넬은 하위스 이카이브에서 찾은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카이브인 레 카트르 옹브르 팔레트를 재해석해 선보인다. 레 카트르 옹브르 비장스는 비진틴의 화려함이 담긴 샤넬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머드 골드 효과의 광택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광채, 강렬한 피그먼트가 특징이다. 그중 레 카트르 옹브르 308 배추호 잎프와 잎은 옐로 시바이어, 가닛의 보랏빛 광채, 강렬한 레드 쿼츠와 실버 광택의 로즈 골드 톱코트로 알찬 구성을 자랑한다. 휴양지에서나 일상생활 등 어디서든 우아하고 매력적인 서머 메이크업을 만끽해보자. 2g 9만 6천 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 COLOR CRUSH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컬러 백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로 블루와 그린 컬러가 그려진 색칠이 무늬의 숄더백 소재의 미니 사이즈 원더백 2만 7천 원 **마리나기오**, 문의 02-3430-7854, 카팅 스톤에서 영감을 독특한 디자인의 니콜이 포인팅 숄더백 소재의 블루 컬러 주얼 호보 미니 백 3만 2천 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8, 태양 빛을 머금은 모래처럼 빛나는 골드 컬러를 담은 메탈 소재의 채널과 우드 비즈 톱 엔들 미니 클러치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포토그래퍼 **김사윤** 인턴 에디터 **신정민**

## 거장의 마지막 인사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마지막 인사하는 이야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12개국 875 투어, 15만 장, 15만 장, 15만 장, 15만 장

그저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지난 3월 28일 타계한 그가 마지막으로 직접 전한 글을 엮은 단행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2014년 중인두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데 성공했지만 2020년 6월 직장암이 발견되면서 투병 생활을 했다. 그는 고향을 향해 자신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 《마지막 황제》(1987)의 대사가기도 한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고, 이렇듯 시간의 유한함을 마주하면서 일본 문예지 《신호》에 칼럼을 연재했다(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과 싸우지 않고 임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담담히 말하며 자신의 인생과 음악, 예술에 얽힌 소신과 단상을 담아낸 류이치 사카모토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의 CD를 들고 특유의 애잔함이 흐르는 아름다운 연주곡의 곁을 따라 상념에 빠지게 될 게 모른다. 책 말미는 그의 마지막 오라차널 앨범 (12)에 대한 에피소드로 수놓았는데, 다음과 같이 갈무리된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일단 마칩니다. Ars longa, vita brevis(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의 유언이 된 이 문장처럼 여전히 사카모토의 음악과 예술은 우리의 귀와 심장을 울리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럴 것이다. 3백96쪽양장, 2만 원, 위즈덤하우스



## ICONIC BIRD

타피니 하이 주얼리 역사와 함께해온 전설의 주얼리 디자이너 잔 슬림버저(Jean Schlumberger)의 컬렉션 중 가장 대표적인 '버드 온 어 락'(Bird on a Rock)' 컬렉션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주얼리를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에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하이 주얼리 세트 및 컬러풀한 레인보우 버드 온 어 락(Rainbow Bird on a Rock) 브로치 등 생동감 넘치는 피스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비드한 컬러감과 유니크한 질감이 돋보이는 레인보우 버드 온 어 락 브로치는 잔 슬림버저의 시그니처인 코카투 브로치(Cockatoo Brooch)에서 영감을 이치 새로운 색상, 질감, 그리고 파우치 에-펠 등 생동감 넘치는 소재를 사용해 세 모티브를 생생하게 나타내 보였다. 총 44캐럿의 그린 쿠프로안 알바이트 투르말린(cuprian elbaite tourmaline)을 세팅한 버전은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준다. 문의 02-6250-8620

## 클래식의 재해석

워터메이킹의 장인 비제몬 콘스탄틴에서 우아한 풍격이 갖은 새로운 트래디셔널 투르바용 워치를 선보인다. 자름 41mm의 플라티넘 소재 케이스에 섀브스트 그린 다이얼이 대담한 모습을 드러내며, 무엇보다 두께가 단 5.65mm에 불과한 투르바용 레굴레이터로 구동하는 울트라-신 슬프 와인딩 인하우스 칼리버 2160/1로 완성한 슬림 케이스로 혁신성까지 부여한 것이 포인트. 이는 페르페컬 로터를 탑재한 덕분에, 칼리버의 두께를 줄이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무려 80시간의 넉넉한 파워 리저브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 기술력이 담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스타일의 워치로 시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문의 1877-4306



## SEDUCTIVE VOLUME

부젤라에서 모자이크(Mosaico)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부젤라의 창립자 마리오 부젤라가 1920년대에 제작했던 이이코닉한 작품을 현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인드레이 부젤라의 손길을 거쳐 재해석한 브레이슬릿, 비브 네크리스, 칼데일 링, 팬던트 이어링으로 선보이며 컬렉션을 더욱 확장했다. 비진틴 시대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파베 다이아몬드와 컬러 젤스톤은 독보적으로 화려한 광채를 선사하며,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리드미컬하게 반복적인 장식 디테일의 호모니가 돋보인다. 부젤라티 고유의 금세공 전통과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한 이번 컬렉션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창의성을 보여준다. 문의 02-3440-5613



## ABOUT FACE

강렬한 태양에 후끈 달아오르고 스트레스로 지친 남성의 피부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시세이도 맨 알티뮤네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터를 소개한다. 시세이도는 남성 피부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동백·부의와 꽃, 씨에서 트리를 초화기 테크놀로지™를 추출했다. 트리를 초화기 테크놀로지™는 외부 자극으로 자극된 피부 수분 손상을 개선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선사한다. 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영차버섯 추출물을 함유해 가진 피부결은 물론 미세한 주름까지 감싸며 스트레스로 생긴 피부 고민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다. 무엇보다 뷰티 케어가 서툰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워터 젤 타입의 포뮬러로 즉각적으로 수분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32시간의 보습력을 선사한다. 30ml 9만 5천 원. 문의 080-564-7700



## GET CLUTCH

봄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클러치 3.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숄더백 소재에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편의성을 더한 브라운 컬러 스타일 미우미우 86만 원 **샤넬**, 문의 1577-8841, 밝은 브라운 컬러 가죽 소재에 오프 화이트 패턴을 더한 토트 백 GG 래더 미디엄 매시지 백 2만 2천 원 **구찌**, 문의 02-3452-1521, 단단한 가죽 소재에 얇은 칼라가 입문하는 브라운시 그린 컬러 미아스터스틱 4810 렌셀로우 퍼우치 99만 원 **올버링**, 문의 1877-5408 포토그래퍼 **최인태** 인턴 에디터 **신정민**



# Summer Splendor

반짝이는 스캔글과 화려한 비즈 디테일의 패션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글램 서머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핑카하연선도 우아한 느낌을 전하는 아세이트 소재의 선글라스. 33만6천원 **플라워엔 가바나 by 에실로르스타카**. 2 마카도 실크 소재의 아슬라, 아슬라 오버스카트 1천2백만원 **탐이트라 by 헤라디크뉴욕**. 3 18K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반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5백만원 **반달리프 아멜**. 4 실크 트릴 소재의 슈발로스코프 90cm 스카프 71만원 **에르메스**. 5 은은한 플로럴 향의 단상 블라썸. 100ml, 가격 미정 **루이비통**. 6 달콤한 과실 풍미를 선사하는 심포니 메종 세인트 마가리트. 750ml, 30만대 **심포니 메종 세인트 마가리트 by 페르노라카 코리아**. 7 총 0.8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와 그린 칼라 말라카이트 소재 다이얼의 조합이 특징인 쟈 디올 타임피스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8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라워넵 소재의 슬라테어 1865 링 가격 미정 **카르띠에**. 9 마디오브릴리 말라카이트로 장식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부여하는 프라티우먼 브레이슬릿 3백20만원 **프라티**. 10 총 0.4캐럿의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 포맬라토 투게더 링 가격 미정 **포맬라토**. 11 V자 모양 클로저가 특징인 카프 스킨 소재의 미니 벨라 백. 21X16cm, 2백만원 **에트르**. 12 총 0.67캐럿의 3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0.1캐럿 1천7백30만원 **샤넬 확인 주얼리**. 13 쿠어은 리본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세틴 소재의 나이트 아웃 펌프스 1백30만원 **발렌티노 가바나니**. 14 100% 알루미늄 소재로 견고함을 자랑하는 장거리 여행용 패킹 케이스. 28X52X77.5cm, 2백90만원 **투미**.

에실로르스타카 02-501-4436 헤라디크뉴욕 02-514-4010 반달리프 아멜 1877-4128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비통 02-3432-1854 페르노라카 코리아 02-3466-5700 디올 타임피스 02-3280-0104 카르띠에 1877-4326 프라티 02-514-3721 포맬라토 02-3143-9486 에트르 02-3446-1969 샤넬 확인 주얼리 080-805-9628 발렌티노 가바나니 02-2015-4655 투미 02-539-8950

## for her Selection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수직접으로 완성된 세틴 소재의 오버사이즈 보 포인트와 활짝 넘치는 길리엄의 비즈가 돋보이는 비즈 클러워 보우 술래백 3백20만원 **모치 바비에**. 문의 02-3479-6115. 허위스핀의 아이클라워를 장식한 크리스탈이 무어들을 배가하며, 그나마 블루 컬러를 애용해 위드인 것을 선사하는 크리스탈 R 브로치 **오르비탈 로사스**. 문의 02-3449-5926. 나비 송이까지 소재로 만연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핏독 스트랩이 안쪽을 더해주며, 신바 장리의 톱그린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연꽃 가격 미정 **미늘로 플라워**. 문의 02-3479-1989. 두께감이 있는 메탈 소재 카프에 스트라스를 첨가해 세팅해 심플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오원형 방글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바이너리메트릭스커 비즈로 컷의 보링팅 스톤이 오묘한 매력을 선사하며 대담한 시어즈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큐어오시 카터링 링 55만원. 파스텔컬러 조합이 화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플라워 컷 크리스탈이 특징인 쟈마 네르리스 63만원 **모두스 오원보스카**. 문의 02-1522-9065. '발라투르' 마길 차원인 925 스텐링 심플한 디자인 실용 귀걸이로 차트를 생생하게 세팅해 반짝임을 강조한 크리스탈 로고 오픈형 귀걸이 1백20만원 **프라티**. 문의 02-3443-6047. 어여비리한 느낌을 주는 연꽃형 오원보스카 크리스탈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팔각형 슬리밍 라인 세팅 스트랩 및 연꽃을 활용해 크리스탈 비즈, 술래백, 핸드백으로 연꽃 기능인 알베르티니 로고 백 5백70만원 **발렌티노 가바나니**. 문의 02-2015-4655 **에디용서정**

# Black Chic

강인함과 현대적인 시크함을 아우르는 블랙 다이얼 워치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메탈 소재의 선글라스 6825천원 **프라다 by 에실로룩스타카**, 2 코리아 인스클루시브 싱글브레스스 포츠코트 4백45만원, 코리아 인스클루시브 펜츠 1백15만원, 포플린 프렌츠 카프 텍사도 셔츠 1백5만원, 실크 새틴 보타이 25만5천원 모두 **밀프 로렌 퍼플 리벨**, 3 카본 피버 80%와 레더 20%로 재해 견고함을 자랑하는 글로벌 더블 알렛 32만원 **투미**, 4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네크라스 가격 미정 **다이아니**, 5 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LOVE 링 6백만원대 **까르띠에**, 6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노트 컷프 링크스 가격 미정 **타파니**, 7 단정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실크 소재의 남성 타이 1백63만원 **에르메스**, 8 카본 스킨 소재의 V 로고 시그니처 리버시블 벨트 76만원 **발렌타노 가리바니**, 9 직경 42mm 케이스에 6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DLC 티프늄 소재의 예스콜라버 42 1억 3천만원대 **로저드뷔**, 10 메탈 소재의 벨 메탈 인신스 버니 43만원 **구찌**, 11 블랙 대리석 케이스 자체로 훌륭한 오브제 역할을 하며 짙은 향이 특징인 레 부지 피파에 향초 파타미테오 300g, 21만5천원 **오피신 유나비셀 불리**, 12 화이트 골드 포인트가 눈길을 사로잡는 파피엔트 레더 소재의 밋 그레고 1백4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13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브라운슬릿 2천만원대 **프라데**, 14 수납력이 좋아 트라블 세컨드 백으로 활용하기 제격인 테니 30X45X20cm, 35만9천원 **셀스나이트**.

에실로룩스타카 02-501-4436 밀프 로렌 퍼플 리벨 02-3438-6235 투미 02-539-8950 다이아니 02-515-1924 가리바니 1877-4326 타파니 02-6250-8620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타노 가리바니 02-2015-4655 로저드뷔 02-3479-1403 구찌 02-3452-1521 오피신 유나비셀 불리 031-688-5552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프라데 02-514-3721 셀스나이트 02-2007-2943

## for him Selection

신사의 품격을 지닌 예비 신랑에게 어울리는 웨딩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8 **발렌타노** 벨트 1백45만원, 9 **로저드뷔** 알렉산드르 발렌타노 1.6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 개를 세팅한 36mm의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가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며, 블랙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 옐로게이터 스텔라이 모던한 감성을 다한다. 22K 핑크 골드 진동추를 갖춘 오토매틱 RD630 칼라리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403

13 **셀스나이트** 브레이스 에니메이션 1.6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 개를 세팅한 36mm의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가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며, 블랙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 옐로게이터 스텔라이 모던한 감성을 다한다. 22K 핑크 골드 진동추를 갖춘 오토매틱 RD630 칼라리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403

14 **에르메스** 브리프 케이스 43mm 스틸 케이스와 그레이 다이얼은 한때의 명품도 남상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리에서 동력을 얻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33



오메가 시계

(왼쪽부터 차례대로) **까르띠에** 신도스 뒤몽 빈투르 래커 미감으로 완성한 블랙 스테이 다이얼에 로마숫자와 검모양 스틸 핸즈의 조합이 돋보인다. 또 케이스 백에는 알베르토 신도스 뒤몽의 자필 서명을 감상할 수 있으며, 430 MC 칼라리로 구동한다. 8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오메가 더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엄 마스터 크로노미터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40mm 케이스에 태양광 패턴 마감 처리한 동형 PVD 블랙 다이얼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에는 PVD 처리한 세드나™ 골드 컬러 핸즈와 로마숫자, 카바송을 교차 배열한 인테스의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칼라버 오메가 8800으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01

**로저드뷔 알렉산드르 발렌타노** 1.6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 개를 세팅한 36mm의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가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며, 블랙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 옐로게이터 스텔라이 모던한 감성을 다한다. 22K 핑크 골드 진동추를 갖춘 오토매틱 RD630 칼라리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403

**블랑팡 피프티 퍼센트 비티스프** 43mm 스틸 케이스와 그레이 다이얼은 한때의 명품도 남상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리에서 동력을 얻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33

**IWC 피델리티 워터 크로노그래프 41** 탭댄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다이얼과 리버 스텔라까지 울 블랙의 시크하고 묵직한 멋을 드러낸다. 직경은 41.9mm이며 시간, 분, 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다. 46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자기 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연철 내부 케이스를 장착했다. 자체 제작 69380 칼라버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1백75만원, 문의 1670-7363

**에거 르클레르 리베르스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블랙 스테이 다이얼과 45.6 x 27.4mm 핑크 골드 케이스 조합이 클래식한 매력을 발산한다. 42시간 파워 리저브와 3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매뉴얼 와인딩 에거 르클레르 칼라버 822로 구동한다. 3천2백90만원, 문의 1877-4201

**브루게 레인드 네이플 8918 블랙 그랑 피 에-벨** 장인들이 그랑 피 에-벨 기법으로 완성한 블랙 다이얼이 모던하고 세련된 기품을 선사한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베젤과 다이얼 플랜지에 세팅한 1백1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자태를 보여준다. 또 6시 방향의 약 0.06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5천1백38만원, 문의 02-3479-1008 에디터 윤지경





지난 7월 중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개봉한 그레타 거윅 감독 연출의 영화 <바비>. 배우·감독·작가로 활약하는 팔색조 그레타 거윅의 국내 팬이 은근히 많은 데다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배우 마고 로비, 케다가 <라라랜드>의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까지 합세한 터라 이목이 많이 쏠렸다. 여성이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상의 바비랜드와 남성이 지배하는 현실의 극단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성별 갈라치기 현상을 나름 재기 발달하게 하지만 '항마력' 달린다는 호소가 나올 만큼 오글거린다는 평도 많다) 일깨우면서 어디서 될 하든 스스로를 잃지 말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거윅 감독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특독 튀는 감성이 전혀 묻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화면도 예쁘고 사운드(음악도) 준수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블록버스터를 노린 12세 관람가의 대중 영화라 그런지 내용만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는 메시지를 그다지 예지 있게 비틀거나 맞닿나게 바꾸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폭넓은 대중을 아우르는 재미와 작품성을 동시에 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이런 시도를 응원하고 싶은 이유는 마고 로비가 제작자로 나섰다든 배경 때문이다. 사실 마고 로비는 2014년부터 제작자 럭키첵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해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스크린에 담아내왔다. <바비>처럼 제작과 주연을 맡은 피겨 스케이터 토냐 하딩의 이야기 <아이, 토냐>, 제작자뿐만 참여한 <프라이밍 영 우먼> 등이 럭키첵의 작품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만 있냐고 비판만 일삼기보다 자신이 쓰고 싶은 얘기를 쓰고, 만들고 싶은 작품을 제작하는 그녀들에게 차가작을 지지하고 기다릴 것이다.

**시스템 카친의 호시 프랑크푸르트 카친에서 비롯된** 현대사회에서는 적어도 교육 커리큘럼이나 사회제도 면에서 대놓고 차별을 가하는 풍경이 흔하지 않다. 물론 직업군이나

위계를 볼 때 성비 불균형은 존재하지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차별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부모나 교육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려 '잘난 여성'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바비>에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이라는 강박으로 생기는 '슈퍼 우먼' 증후군이라든가 다른 재주 없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장적인 여성은 열등감을 느껴야 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지적되는 장면이 더 많이 와닿는다. 빈약한 부익부의 양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평범에 머무르면 행복하기 힘들 것만 같은 현실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한 가지 현상이나 사물을 둘러싼 긍정적 인식이나 관점도 실은 또 다른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산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자리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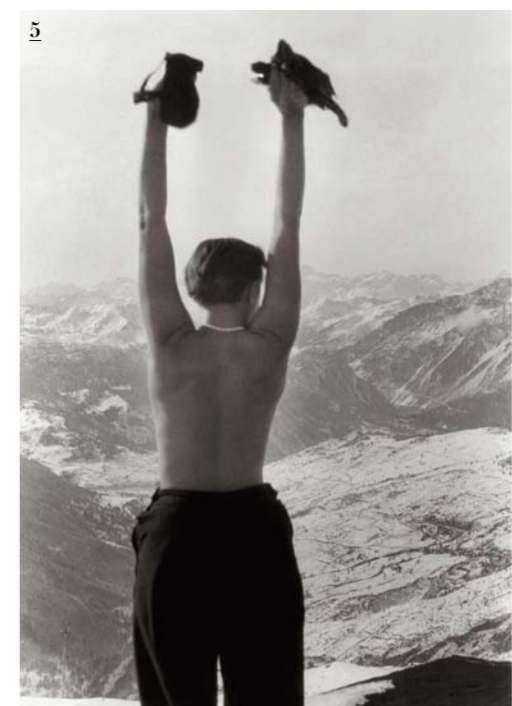


에서는 디자인과 건축사에서 유의미한 주거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홈 스토리즈> 전시가 진행 중인데(오는 10월 1일 까지), 이 중 우리의 편견이 반영되었을지도 모르는 '프랑크푸르트 카친(1926~1927)을 선보이고 있다. 디자인계의 성지로 꼽히는 비트라 뮤지엄의 귀한 소장품으로 최소 면적에서 작업 동선을 집약적으로 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시스템 부엌의 효시로 통하는 모델이다. 예컨대 가구가 차지하는 부분을 줄여 일의 효율을 높이고 부엌용품을 벽걸이 나 서랍형으로 보관하도록 규격화했고, 접이식 다림질판도 설치했다(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성 디자이너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의 디자인이라 여성이 여성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식의 칭송 어린 평가를 받기도 해왔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일부 학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부엌은 어째서 여성성을 부여받는 것일까? 원래 그랬을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듯 부엌이 마치 주로 여성의 공간인 듯한 인식은 언제, 왜 뿌리내린 걸까? <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의 도연정 저자는 움집의 중심이 모닥불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부엌의 여성성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불이 난방과 취사 역할을 담당했기에 부엌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로 기록됐고,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부엌이 주거의 중심이자 가족이 함께하는 일터였는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 공장 일꾼이 폭증하면서 노동의 분화가 이뤄지고 여성이 부엌일을 비롯한 가사를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서구에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라면 가사 노동은 하인에게 맡겼지만 점차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면 비생산적으로 치부됐던 가사 노동이 여성의 업무로 규정됐고, 과학적 관리 열풍이 불면서 모듈화된 '시스템 부엌'도 등장하게 됐다는 것



이다. 디자인 자체의 업적은 차치하고, 부엌의 효율성이 여성의 가사 노동을 더욱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계로 작동했다는 비판은 곱씹어볼 만한 설득력이 있다.

**대륙을 넘어 창조적 역사를 쓴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  
<홈 스토리즈> 전시장에서 향하는 입구에 통유리창 바깥의 경치를 감상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담은 커다란 사진의 주인공은 또 다른 맥락에서 디자인 선구자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20세기 전반의 훌륭한 전쟁 시가를 겪으면서 브라질로 떠나 시민권자로 여생을 보낸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라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생인 리나 보 바르디는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건축기를 꿈꿨지만 여성이라는 제약, 무솔리니의 권력자 시절과 전쟁까지 거치며 좀처럼 건축 일을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밀라노로 옮겨 저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조 폰티와의 인연으로 디자인 잡지 <도무스>를 위시해 전문 출판 일을 왕성하게 하게 됐고, 평론가이자 컬렉터인 남편 피에트로 바르디를 만난다.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결혼으로 맺어진 이 커플은 모든 게 파괴된 이탈리아를 떠나 브라질로 향한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정착한 바르디 부부는 자연의 생기와 따스한 정이 흐르는 현지 환경과 문화에 빠져들었다. 친유이 찾아왔는지 바르디 부부는 브라질의 사업자를 만나 이 지역 최대 미술관인 상파울루 미술관(MASP)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1947년 제안 설립, 1968년 개관). 리나가 설계를 맡은 이 미술관은 4개의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커다란 사각형 박스를 지지하는 듯한 형태로 가장 변화한 거리인 파울리스타 대로에 위치하는데, 지상 1층 공간을 많은 이들이 가로지르며 다닐 수



1 현대 모터스튜디오(MMS) 부산에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합점으로 진행 중인 <홈 스토리즈(Home Stories)> 전시회는 10월 1일까지(이제는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로 30대 초반인 1946년 남편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해 여생을 보낸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의 바르디부터 천황까지 유리로 된 채 비드르(1951)의 축소 모형도 볼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부터 조경이 시작되어 한자의 토속 식물을 심어놓은 유리 중정까지 이어져 자연과 진정성 있는 교감의 공간이 가능하다. 리나 보 바르디는 모든 디자인과 건축의 성원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행보를 펼쳤다. 이미지 제공: HMS 부산 2~4 주방에서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 카친'의 호시(로 통하는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의 '프랑크푸르트 카친', HMS 부산에서 열리는 <홈 스토리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5 1930년대로 추정되는 사가(제 20대의 사블로트 페리앙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가 사블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이 설계한 피난 기숙으로 사람의 동에 지고 이동할 수 있는 유목 건축물 레퍼주 트보(Refuge Tonneau, 1938). photo by Stefano De Monte. 이미지 제공: Cassina 7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해안을 품은 코르브란-카프-마르방에 위치한 아일렌드 출신 디자이너 겸 건축가 이일렌 그레이(Eileen Gray)의 E-1027 빌라. 젊은 연인 장바드 비라피의 은신처로 삼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설계와 인테리어를 거의 전담했다고 전해지며(1929년 완공), 모더니즘 건축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건축가 겸 코르뷔지에가 이 빌라를 마음에 들어해 자주 드나드는 바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그의 작품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빌라 뒤편 산기슭에 르 코르뷔지에의 13m(4층)짜리 오두막이 자리한다. 8 E-1027 빌라의 거실 인테리어. '캠핑 스타일'을 위한 이동형과 조립식 디자인을 기미했다. 창대 아래 놓인 E-1027 테이블은 놓낮이 조절 가능한 사이트 테이블로 지중도 스테디셀러다. 9 호주 시드니 중심지의 도메인 지구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SW 주립미술관의 확장 프로젝트로 자체 12월 초 문을 연 신관 건물, 일본 '스타가렛' 듀오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맡았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라츠카상을 받은 SANAA의 세라미 거근은 건축 규격이 많은 일면에서도 드문 여성 건축가로 세태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토끼 귀를 연상시키는 인형은 라빈 캐머 등 그녀의 가구 디자인도 유명하다. \* 2~4, 7~9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2 리나 보 바르디는 외국인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뒷세와 저평가도 겪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운이 좋은 인물이었다. 유복하고 진취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덕분인지 그가 겪이지 않았고, 인생의 고비마다 귀인을 만났다. 70대에 들어서도 40대 시절보다 더 많은 일을 의뢰받았더니, 운과 실력도 작용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에 반해 어느 정도 동시대를 산 유럽 출신의 여성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사블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과 아일렌 그레이(Eileen Gray)는 인생 후반기 또는 사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와 대접을 받은 선구자들이다. 이들의 성장 배경이나 상황은 사뭇 달랐지만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통하는 르 코르뷔지에와 얽힌 인연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그림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다. 그레이는 연인과의 은신처로 직접 설계한 남프랑스의 E-1027 빌라(1929년 완공)가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부아(1931년 완공)에 앞서 근대 건축 5요

장이 특징인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의 시설로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재생 건축의 효험한 예로 알려져 있다.

**사후에야 제대로 인정받은 2명의 모더니스트, 그리고...**  
리나 보 바르디는 외국인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뒷세와 저평가도 겪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운이 좋은 인물이었다. 유복하고 진취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덕분인지 그가 겪이지 않았고, 인생의 고비마다 귀인을 만났다. 70대에 들어서도 40대 시절보다 더 많은 일을 의뢰받았더니, 운과 실력도 작용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에 반해 어느 정도 동시대를 산 유럽 출신의 여성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사블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과 아일렌 그레이(Eileen Gray)는 인생 후반기 또는 사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와 대접을 받은 선구자들이다. 이들의 성장 배경이나 상황은 사뭇 달랐지만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통하는 르 코르뷔지에와 얽힌 인연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그림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다. 그레이는 연인과의 은신처로 직접 설계한 남프랑스의 E-1027 빌라(1929년 완공)가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부아(1931년 완공)에 앞서 근대 건축 5요

있도록 비유된 인상적인 건축으로 유명하다. 리나의 창조 여정을 담은 앙헬라 레온의 그림책 속 묘사처럼 '그냥 거리 한쪽에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미술관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건축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리나 보 바르디는 미술관 내부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의자와 보석을 만들었으며, <히비타트>라는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에서 첫 번째로 완공된 리나의 설계 작품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는데(1951), <홈 스토리즈>에서 깔끔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카사 데 비드로(Casa de Vidro)다. 삼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나무와 식물, 새 등 주변의 자연미를 투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 집은 모더니즘 건축이 정착함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거론된다. 그녀의 또 다른 대표작은 다른 건축가들과 협업해 상파울루의 오래된 공간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센터 'SESC 폼파리아'인데, 성체 같은 타워를 세우고 유리를 끼우지 않은 구멍처럼 생긴

소를 아무렇게 담아내는 바람에 그의 질투를 샀다는 스토리가 나중이야 알려졌다. 비록 처음에는 실제 건축이나 디자인으로 많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수를 누리면서(1903~1999) 꾸준히 스케치를 남긴 페리앙의 작품은 이제 가구 회사나 기관에서 '상품'이나 '건축 모형'으로 빛어내고 있고, 은둔형 기질의 소유자였던 그레이의 경우에는 몇몇 오리지널 빈티지가 경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현재에도 생산된다. 저마다의 상황과 성향은 달랐지만 이들의 진짜배기 공통점은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을 잃지 않고 고유한 창의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펼쳐냈다는 점이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숏선생해 영화로 만들어내는 21세기의 마고 로비처럼, 쿨하게 자신만의 챗터를 완성하며 20세기를 살아간 당당한 창조적 영혼들이다. 글 고성연



# Write your own Chapter!

The Women Who Inspire Us\_16 Design Thinkers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에도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도 일부 국가나 지역을 제외하면 제도적 차원의 억압은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불과 1백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미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이다. 뉴질랜드는 참정권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는데, 19세기 중반만 해도 재산이 있는 유럽 출신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여성 투표권을 적용한 선거는 1893년에야 치러졌다. 장벽을 거뒀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기관으로 모더니즘의 산실인 독일 바우하우스가 1919년 개교했을 때 지원자는 의외로 여학생 84명, 남학생 79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 교장 발터 그로피우스는 여학생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직조 공방 같은 제한된 영역으로 유도했다. 그렇다 보니 여성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대화의 빠른 물살 속에서도 편견을 던지고 자아실현을 한 선구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 Space i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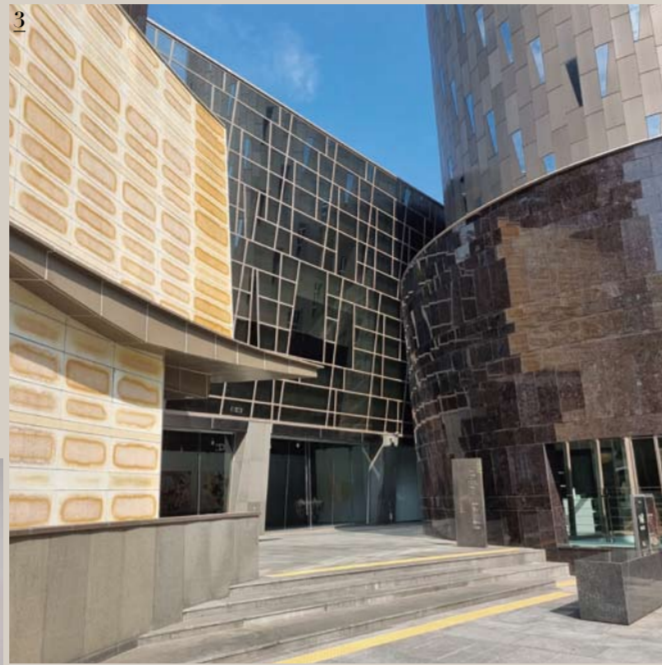
기술자, 비즈니스맨, 문화산업 종사자 등으로 대표되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 이론으로 유명한 도시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의 성공 열쇠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소위 '3T'를 꼽는다. 그는 인종, 국적, 성적 취향, 문화적 배경 등에서 각양각색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다양성'을 창조 도시 융성의 관건으로 강조했다. 나중에 다양성과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논리가 지나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혼중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우연한 충돌의 작용으로 창조성이 꽃피우는 토대인 다양성의 역할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은 명실공히 메가 시티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바깥세상의 개성과 장점이 뒤섞이는 다양성 차원의 관용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지구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팬데믹 이후의 풍경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미술계에서는 다양성이 커진 모양새다.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지난해 가을 서울에 입성하면서 해외의 크고 작은 갤러리가 진출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페어든 갤러든 미술 자본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의 출현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오는 9월 초 예정된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워 서울을 찾은 갤러리 공간을 소개한다.

## #화이트 큐브 서울(White Cube Seoul)

미술에 지갑을 여는 문화 소비자가 많아지고 상대적인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규모와 개성을 지닌 생태계 구성원의 진출이 증명해준다. 팬데믹 시기에 한국 미술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받던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지난해 서울에서 1회 행사를 열었고, 이를 전후해 내로라하는 갤러리들이 입성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등 한층 한국 시장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이렇듯 갈라지지 않는 협소한 공간을 꾸리던 페이스 갤러리가 대대적으로 공간을 확장했고, 갤러리 페어링은 도산공원에 새 터전을 꾸렸으며, 터데우스 로프는 2021년 가을 첫 지점을 낸 뒤 얼마 전 다시금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메가 갤러리라 일컬어지는 화이트 큐브가 서울 상륙을 알렸다. 1993년 런던에서 출발한 화이트 큐브는 1990년대 세계 미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이른바 'Young British artists' 작가들(데이비드 하트, 트레이시 에민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다)로 도약하며 세계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고 홍콩, 뉴욕 파리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갤러계의 최강 브랜드인 고갱시인을 위시해 허우자관왕스, 데이비드 즈워너 같은 강자들이 크게 각광받으면서 예전 명성만큼은 못하다는 평도 듣지만 안젤름 카퍼, 안토니 골리, 게오르크 바젤리츠, 트레 이시 에민, 안드레아스 가스키, 모나 하툼 등 쟁쟁한 작가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계의 가장 박사보 화백을 대표하는 전속 화랑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해산에 애쓰고 있어 서울 입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프리즈 서울을 통해 첫선을 보였고, 오는 9월 초 프리즈 기간과 서울 도산대로에 자리 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지점에서 개관전을 열 예정이다. 호림아트센터 1층에 300㎡(약 91평) 남짓한 면적으로 전시 공간, 프라이빗 뷰잉 룸, 오피스 등을 꾸리게 된다.

주소 서울시 도산로45길 6 호림아트센터 건물 홈페이지 www.whitec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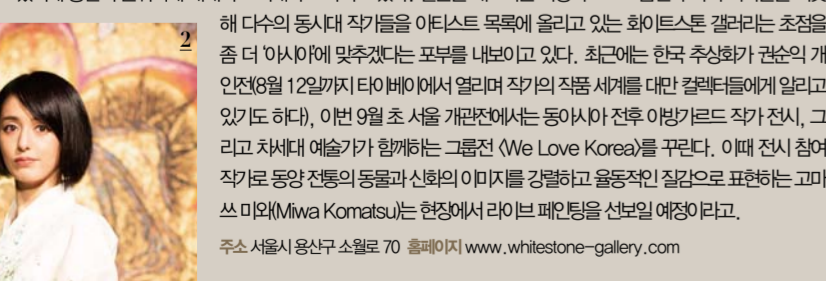


1 2012년 문을 연, 날찍하고 시원한 구조가 돋보이는 런던의 화이트 큐브 버몬디(Bermondsey). 원래 창고로 쓰던 건물을 고쳐 만든 이 갤러리는 당시 유럽 상업 화랑 최대 규모인 5,000㎡(약 1천5백 평)가 훌쩍 넘는 미술관급 규모로 유명세를 알렸다. 화이트 큐브 최초의 갤러리는 창안자 데이비드 조플링이 1993년 듀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서 출발했다. 2 지난해 초 가을 프리즈 서울의 화이트 큐브 부스 모습. 박사보 작가(왼쪽), 시아스터 게이츠(Theaster Gates, 가운데),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오른쪽)의 작품이 보인다. ※ 1, 2 photo by 고성진 3 오는 9월 오피스를 앞둔 화이트 큐브 서울이 들어설 호림아트센터 건물 외관. 서울 지점은 양진희 디렉터가 이끌 예정이다. © Courtesy White Cube



## #화이트스톤(Whitestone) 갤러리 서울

빈세기가 훌쩍 넘는 아역을 지닌 화이트스톤 갤러리는 아시아 지역 곳곳에 지점을 둔 대형 갤러리다. 1967년 도쿄에서 시작해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베이징 등으로 편을 끼웠고, 프리즈 서울 개최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초 아시아 일곱 번째 지점을 서울 남산에 연다. 시정조사부터 장소 선정까지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그렇게 서울을 경차 품은 남산 인근에 언뜻 인상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는 공간을 낙점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700㎡(약 2백12평) 규모로 3개의 주요 전시장을 품고 있고,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등 다양으로 쓰일 수 있는 루프톱도 갖췄다. 갤러리 인터리어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왕성한 창조력을 펼쳐 하고 있는 구마 겐고가 맡았기에 공간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그룹인 구타이 작가들을 비롯



1 해 다수의 동시대 작가들을 이티스트 목록에 올리고 있는 화이트스톤 갤러리는 초점을 좀 더 아시아에 맞추겠다는 포부를 내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추상화가 권순의 개인전(8월 12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열리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안 칼럼니스트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다), 이번 9월 초 서울 개관전에서는 동아시아 전후 아방가르드 작가 전시, 그리고 차세대 예술가가 함께하는 그룹전 《We Love Korea》를 꾸린다. 이때 전시 참여 작가로 동양 전통의 동물과 신화의 이미지를 강렬하고 율동적인 질감으로 표현하는 고마쓰 미와(Miwa Komatsu)는 현장에서 리아브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70 홈페이지 www.whitestone-gallery.com

1 서울 남산 근처에 자리 잡은 화이트스톤 갤러리의 외관. 갤러리 인터리어를 일본의 스타 건축가 중 한 명인 구마 겐고가 맡아 가늠을 모으고 있다. ©Kengo Kuma and Associates 2 9월 초 프리즈 서울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릴 갤러리의 첫 전시 《We Love Korea》는 기획한 권순의, 이진시에 참가할 고마쓰 미와(Miwa Komatsu)는 리아브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양 전통의 동물과 신화의 이미지를 강렬하고 율동적인 질감으로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Komatsu Miwa Studio

## #에프레미디스(Efremidis) 서울

서울 강남 선정릉역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 자리한 이렇듯 건물 1층에 자리한 99㎡(30평) 남짓한 전시 공간. 전 세계에서 열정 가득한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도시인 독일 베를린에서 2018년 문을 연 에프레미디스 서울 지점이 들어선 공간이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작가와 협업하고 있는 갤러린이 에프레미디스는 지난 5월 그 같은 다채롭고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6인 그룹전 《전환(Tapetenwechsel)》으로 개관전을 치렀다. 규모가 작은 전시지만 사이고 아트 인스티튜트 교수이자 큐레이터, 비평가로도 활약 중인 미술 그래픽의 대형 회화 작품을 비롯해 저마다의 개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구성이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또 다른 6인의 작가들 내세운 그룹전 《No Remedy for Memory》를 열어 고유한 갤러리의 색채를 거듭 소개했다. 시류에만 맞추는 상업성이 다분하거나 화제성 덕분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작품보다는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동시대 작가들을 일컫는다는 목표를 둔 갤러리가 전시 작품을 꼼꼼히 노려본 아주 작은 미술관이나 베를린의 아트 랩에 온 느낌을 주는 듯한 작업 세계가 차츰 흥미롭게 외溢한다. 에프레미디스는 특이하게도 그리스 출신의 스타브로스 에프레미디스(Stavros Efremidis) 대표와 한국 출신 우승웅(Tom Woo) 대표가 손잡고 만든 갤러리다. 미술 시장에 뛰어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프리즈 런던, 파리, 아트 쉐어 등 세계적인 아트 페어에 참가하며 입지를 다졌고 한국에서도 카이파와 아트부스를 통해 칼레타들과 만난 이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우수한 작가의 개인전을 독일에서 여는 등 한국 작가에의 관심도 키워 가고 있다. 오는 9월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아우라 로젠버그의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글 고성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37 홈페이지 https://efremidis.com

1 베를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 아서 레이들러(Arthur Laidlaw)의 강렬한 붉 타와 색감, 율동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회화 작품. 독일 베를린 기반의 갤러리인 에프레미디스 서울 지점의 첫 전시(지난 5월)로 기획된 6인 그룹전인 《전환(Tapetenwechsel)》에도 포함됐으며, 8월 4일 열리는 2인전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 에프레미디스 서울의 두 번째 전시로 6월 30일 시작해 7월 말에 막을 내린 또 다른 6인 그룹전 《No Remedy for Memory》에서 선보였던 작가 그라비에 로블레스 데 메디나(Xavier Robles de Medina)의 작품들. 백면의 왼쪽 작품은 Rajjo Taiso(Isticy), 2018, Graphite on coloured paper 26 x 20cm, 오른쪽 작품은 'Cult Value', 2019, Graphite and plaster, 38.5 x 30 x 11cm 3 서울 강남 선정릉역 근처 건물 1층에 자리한 에프레미디스 서울. ※ 1~3 photo by 고성진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은은한 컬러 렌즈와 프레임에 V 로고 디테일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아서레이들러의 V-UNO 선글라스 1백만원 **발렌타노**, 문의 02-2015-4655. 다채로운 힐 디자인과 상반되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크롬메드 페타트럼 램 스킨 소재의 신발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카어 디자인에 더블 G 엠블럼을 다룬 화이트 레더 소재의 밴디 GG 수를 솔더백 3백7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인감을 램 스킨 소재로 완성하고 신축성 있는 스트랩을 장착해 인공적으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부여하는 세이디 솔라백 핑크스 1백6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유려한 곡선 디자인과 시그니처 포 링 핸들이 특징인 100% 카프 스킨 가죽 소재의 주얼 호보백 4백10만원에 **일렉시언트 맥퀸**, 문의 02-6105-2226. 신물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로고기 눈길을 끌며, 스트로 소재로 제작해 통기성이 뛰어난 리파이 핏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에디터 **윤지영**

# Code Whit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컬러, 화이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슈/이슈

# Ode to Love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을 위한 완벽한 페어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에제리 문 페이즈** 지름 37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 가장자리에는 58개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이얼 안 18K 5N 핑크 골드 소재의 링에 36개 다이아몬드를 정밀하게 세팅해 유려하고 화려한 멋을 뽐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총 1,107캐럿.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을 더하는 마더오브펄로 제작한 구름 아래 골드 달로 장식한 문페이즈는 이 워치의 관전 포인트. 메시 타입의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은 피부감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1088L 칼리버로 구동한다.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오버시즈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블루 라커 다이얼과 18K 5N 핑크 골드 소재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직경 42.5mm 케이스 안 날짜 표시창,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가 돋보이며, 말레 크로스 모양의 스크루로 장식한 칼럼 휠과 916/1000 골드 로터가 특징인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5200으로 구동한다. 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을 함께 제공해 높은 활용도가 돋보인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왼쪽부터)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스포티하고 세련된 멋을 선사하는 투톤 컬러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워치. 흑백 대비 효과의 팬더 스타일 디자인은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또 실버 톤의 산버스트 세팅 피니싱 기법으로 완성한 다이얼에 스내일 블랙 카운터, 블랙 뱀뱀 마감 플랜지, 18K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 시간, 분, 초, 슈퍼루미노바로 코팅한 카운터 핸즈의 조화가 긴장감 있는 멋을 지어낸다. 케이스 직경은 42.5mm이며, 셀프 와인딩 칼리버 5200으로 구동한다. 도구 없이도 스틸 브레이슬릿, 카프 스킨 리더 또는 블랙 라바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하다.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직경 35mm의 스틸 케이스가 핑크 컬러 다이얼을 만나 유아함을 배가한다. 베젤에는 90개의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고, 3시 방향에는 날짜 표시창을 탑재했다.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아워 및 미닛 핸즈와 아워 마커에는 슈퍼루미노바 인레이를 적용해 어두운 밤에도 탁월한 가독성을 자랑한다.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칼리버 1088/1을 장착했고, 사피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으로는 오버시즈 컬렉션을 상징하는 윈드 로즈 문양으로 장식한 22K 골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에더 윤자경**

플라티넘 소재에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플러워 형태로 세팅한 티파니 빅토리아 아이어링, 같은 빅토리아 컬렉션의 티파니 빅토리아 핀던트, 플라티넘 소재에 총 1.01캐럿 오벌 세이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총 0.28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2개로 완성된 화려함을 부여한 티파니 솔리스트 오벌 헤일로 워딩 링, 함께 매치한 가스 링은 우아함을 더욱 높여주는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넘 소재의 티파니 솔리스트 브이 밴드 링, 플라티넘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꽃 사를 세팅한 티파니 포에버 밴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우부터 차례대로) 플라티넘 무드를 선사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마누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아름다운 화관이 떠오르는 디자인이 특징인 총 1.23캐럿 1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로레드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하나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17개의 인베터트라스 컷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양옆에 총 0.23캐럿의 인베터트라스 컷 다이아몬드 2개를 세팅한 비마이 러브 솔리테어 링 6천만원대 **쇼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밴드가 센터 스톤을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유니크함을 선사하는 아모르 포유 인게이지먼트 링 1천2백33만원 **프라이드**, 총 2.01캐럿의 에메랄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광채를 선사하는 플라티넘 소재의 링 가격 미정 **그라프**.

romantic scenes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로맨틱한 하루.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우부터 차례대로) 센터 스톤인 다이아몬드와 기워질수록 잎아지는 인베터트라스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플라티넘 소재의 파이페레 솔리테어 피베 링 가격 미정 **타사키**, 0.52캐럿 다이아몬드를 메인으로 주변에 총 0.41캐럿의 66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플라티넘 소재 브리아딜 컬렉션 K88 링 가격 미정 **블로프**.

(우부터 시계 방향으) 연결이라는 모티브를 담은 브리지 링크가 특징인 총 0.06캐럿의 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라임 에버데이스 링, 총 0.06캐럿의 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라임 에버데이스 링 모두 5백만원대 **소매**, 총 0.25캐럿의 8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1천2백80만원, 클링 모티브의 디자인을 담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1천2백50만원 모두 **시계 화인 주얼리**, 스톤의 단층과 같은 실루엣이 시계와를 선사하는 총 0.2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짐 디올 브레이슬릿, 총 0.22캐럿의 화이트 골드 소재 짐 디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다들 주얼리**, 총 0.08캐럿의 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상세하게 세팅한 플라타늄 소재의 우유르 시그니처 에드왈 웨딩 밴드 3백만원대, 총 0.08캐럿의 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우유르 시그니처 에드왈 웨딩 밴드 2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오른쪽 우부터 차례대로) 각진 앰을 조각을 모티브로 도시적인 무드를 전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링 2백40만원, 사각형 디자인에 각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링 7백34만원 모두 **소파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락 다이아몬드 액센트 밴글, 밴글의 반쪽을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모두 가격 미정 **타파니**, 총 1.41캐럿의 1백2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제션 링 2천1백만원대,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플한 느낌을 전하는 포제션 웨딩 링 3백만원대 모두 **파이에**.



(남자) 가벼운 유플린 소재 블랙 DNA 서츠 가격 미정 **루이비통**, 그레이 컬러 올밴츠 가격 미정 **디올 맨**, 18K 화이트 골드 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파이에**, 로즈 골드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8백60만원 **블가리**, 핑크 골드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네 번째 손가락에 매치한 핑크 골드 자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모두 **가르디에**, (여자) 튜브 톱스타일 드레스 가격 미정 **라워 호드 by 소우 브라이디**, 화이트 골드 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네크리스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에 총 0.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모두 **가르디에**, 화이트 골드 에 0.38캐럿 다이아몬드를 다한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연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핑크 골드 밴드 앵글 에 총 0.38캐럿의 3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파이에**, 골드 스물 사이즈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가르디에**, 화이트 골드 아이스 큐브 밴글 7백28만원 **소파드**, 모델 오른쪽에 매치한 로즈 골드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1천2백60만원 **블가리**.

실카한 소재와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백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다-넬 프랑켈 by 에라티르뉴욕**, 화이트  
 골드 소재의 뭇 모티브 밴드에 총 0.4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자스트  
 영 꿀루 링 **영백인원대**, 뭇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영  
 꿀루 네크리스 **영백인원대** 모두 **카르다에**, 우아한 매들  
 형태의 18K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노트 다이아몬드 펜던트  
 가격 미정 **티파니**, 빅 클라워 형태의 로돌 도금 18K  
 화이트 골드 총 2.477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1백17개를 세팅한 프라불 클림 펜던트 엑스트라 라지  
 모델 4천3백30만원 **빈클러프 아펠**.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5.39캐럿의 5백28개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독보적인 우아함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오션 화이트 & 다이아몬드  
 에그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파베르제**,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울주양에 따라 더욱 빛나는 광채를 선사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모사 플렉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이아나**, 두 줄로 레이어드한 하트 모티브가 사랑스러움을  
 배가하는 총 2.23캐럿의 27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링  
 1천7백27만원 **스파드**, 르네상스의 여가사 브라다민테에서  
 영감받은 대담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며 총 1.48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라다민테 링 3천8백만원대 **부엘라티**,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로즈 디자인이 특장인 0.62캐럿의 7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파이제 로즈 링 1천4백만원대 **파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빗방울의 형태에서 영감받아  
 우아한 매력을 전하는 6개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와  
 1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뤼 드 까르띠에 가격 미정  
**까르띠에**, 패어·마카즈·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채롭게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티파니 빈톨리아 믹스드 클러스터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남자) 핀스트라이프 모폴린 셔츠, 울 재킷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테라**, 라운드 베젤을 장착한 지름 42mm, 두께 6.5mm 곡선형 케이스에 자체 제작 1200S1 기계식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한 풀로 스켈레톤 워치 4천5백80만원 **피아제**, (여자) 새틴 느낌의 튜브 톱 스타일 워딩드레스 가격 미정 **리히 호드 by 소유 브라이덜**, 지름 36mm 스틸 케이스에 71세 장식의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이며, 총 0.07캐럿의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테스로 우아함을 자아내는 자체 제작 500P1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풀로 데이트 워치 2천20만원 **피아제**.



(남자) 트윌 에타카스 싱글브레스트 수트 재킷 7백20만원, 비스코스 실크 토일 슬림 핏 셔츠 1백40만원 모두 **톨 포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저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카르띠에**, 지름 41mm 스틸 소재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블루 래커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고,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L/2로 구동하는 오버시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6천5백50만원 **비세몬 콘스탄틴**, (여자) 옐로 골드에 총 0.4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한 저스트 앵글루 링 8백만원대 **카르띠에**, 지름 34.5mm 스틸 소재 케이스에 산바스트 블루 다이얼로 포인트를 주고, 장일한 칼리버 1088/1로 구동하는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가격 미정 **비세몬 콘스탄틴**.

(남자) 만과 콜라에스터, 실크 혼방의 이탈리아 메이트 트윌 에타카스 싱글브레스트 수트 7백20만원, 비스코스 실크 토일 슬림 핏 셔츠 1백40만원, 수트와 같은 컬러의 솔라 새틴 타이 32만원 모두 **톨 포드**,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에 매력적인 그래픽이선 블루 다이얼과 스카이 블루 컬러 인테스를 매치한 모던하면서 캐주얼한 스타일의 씨마스터 이루어 타라 150M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9백만원대 **오메가**, (여자) 꽃과 비즈를 섬세하게 수놓은 슬리브리스 드레스 **메종 마르틴 마르틴 by 아틀리에루**, 지름 34mm 스틸 케이스에 은은한 핑크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씨마스터 이루어 타라 세이 드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9백만원대 **오메가**.



원 스타인의 블랙 드레스 가려 미정 **탈르 로렌 칼백선**, 18K 옐로 골드에 총 0.53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31개를 세팅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 1천1백40만원대, 경쾌한 감성을 더하는 핑크 골드 소재 베를리 비즈에 총 0.19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6개로 클로버 모티브를 더한 베를리 클로버 핀던트 7백50만원대, 지름 23mm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비즈로 장식한 18K 옐로 골드 베젤을 매치하고 기묘세 오닉스 다이얼과 블랙 얼라기터 스트랩으로 시크한 감성을 더한 베를리 워치 1천3백5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예종의 아이코닉한 자물쇠 모양이 유니크함을 전하며, 총 2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켈리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직경 36.5mm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7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하는 패트리샤 셀프 와인딩 5천5백50만원 **바세린 콘스탄틴**, 하우스의 시그니처 타임피스로 핑크 골드 소재가 여성미를 배가한다. 뒷면으로 돌리면 두 줄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우아한 블랙 다이얼의 눈부신 조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예기 르클레르 칼라버 844로 구동한다. 라베르소 클래식 스틸 듀얼트 가격 미정 **에기 르클레르**, 총 1.777캐럿의 1백 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36mm 핑크 골드 케이스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다이얼을 화이트 자개로 완성했다.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RD821 칼라버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발벳** 주얼리 가격 미정 **로저드워**.



케사미어 소재 그레이니트 톱 2백20만원, 플라워 자수로 브러시업 느낌을 부여하는 플라워 양브로이더리 스카트 1천3백90만원 모두 **프라다**, (위부터) 지름 33mm 케이스에 52개, 총 1.24캐럿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해 화려함을 더하고 다이얼에 총 0.257캐럿의 5개 무빙 다이아몬드 매치해 특유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지니는 해피 스포츠 워치 2천5백58만원 **소피드**, 지름 33.2mm 레드 골드 케이스 베젤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해 우아함을 지니는 빌라레 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2천5백만원대 **블링빙**, 지름 36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기묘세 장식의 화이트 오말 칼라 다이얼을 매치하고 약 0.077캐럿의 총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약 0.977캐럿의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인텍스와 베젤에 세팅한 플로 데이트 워치 7천2백만원 **피아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고유의 일렉트릭 블루 컬러 다이얼이 특별한 신사한다.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스피드 03.05-C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알파인 이글 XL 크로노 3천1백6만원 **스피드**, 직경 40mm 스틸 미스 스틸 케이스가 모던한 감성을 견뎌, 3시 방향에 날짜창을 장착한 실용적인 다이얼이 돋보인다. 10Bar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기능과 1백2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인쇄되어 오토매틱 40 1천4백90만원 **IWC**, 43mm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이 특징으로 1만5천 기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장착했으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오메가 8938을 탑재했다. 스피드스터 블루아 테라 150M 코-엑시집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타이머 43MM 1천4백만원대 **오메가**.



(위부터 차례대로) 도회적인 느낌을 지어내는 스틸 케이스와 카본섬 컷블루 합성 스파클 1개를 세팅한 비즈 스틸 크라운의 조합이 돋보이며, 실버 색인 파니싱 태깅 광택 모터브 다이얼이 심플하고 모던한 무드를 배가한다. 430 MC 칼라버로 구동한다. 산토스 듀얼 타임인원대 **카르띠에**, 47X28.3mm 직사각형 스틸 케이스가 워치 하우스만의 시크함과 멋을 드러낸다. 낮과 밤 인디케이터를 정확히 높은 실용성을 갖췄으며, 예거 르쿨트르 칼라버 854A/2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가격 미정 **예거 르쿨트르**, 43.6mm 세라믹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의 하모니가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남성미를 선사한다. 300m 방수 기능과 1백2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피프티 패덤즈 버티스카프 1천7백만원대 **롤렉스**.

GG 로고 패턴이 개성 있는 록 연출을 돕는 카멜 에보니 샤머 GG 수프림 포털 아카이브 재킷, 여유 있는 알자핏의 카멜 에보니 샤머 GG 수프림 아리아 팬츠, 포인트 칼라 디테일의 세밀 GG 실크 크레이프 캐주얼 스카프 셔츠, 블랙 칼라의 캐디 타이 모두 기성 맞춤 **구찌**, 지름 42.5mm의 950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에 새겨진 컬러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을 자랑한다. 미니멀한 디자인에 흔하지 않은 레트로그라운드 컴플리케이션 조합이 돋보이는 매트르모니 레트로그라운드 데이-데이트 9천2백만원 **바세롤 콘스탄틴**.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Snizhan KW AGENCY),  
Salih(JS AGENCY),  
어시스턴트 신정림  
에디터 상정민, 윤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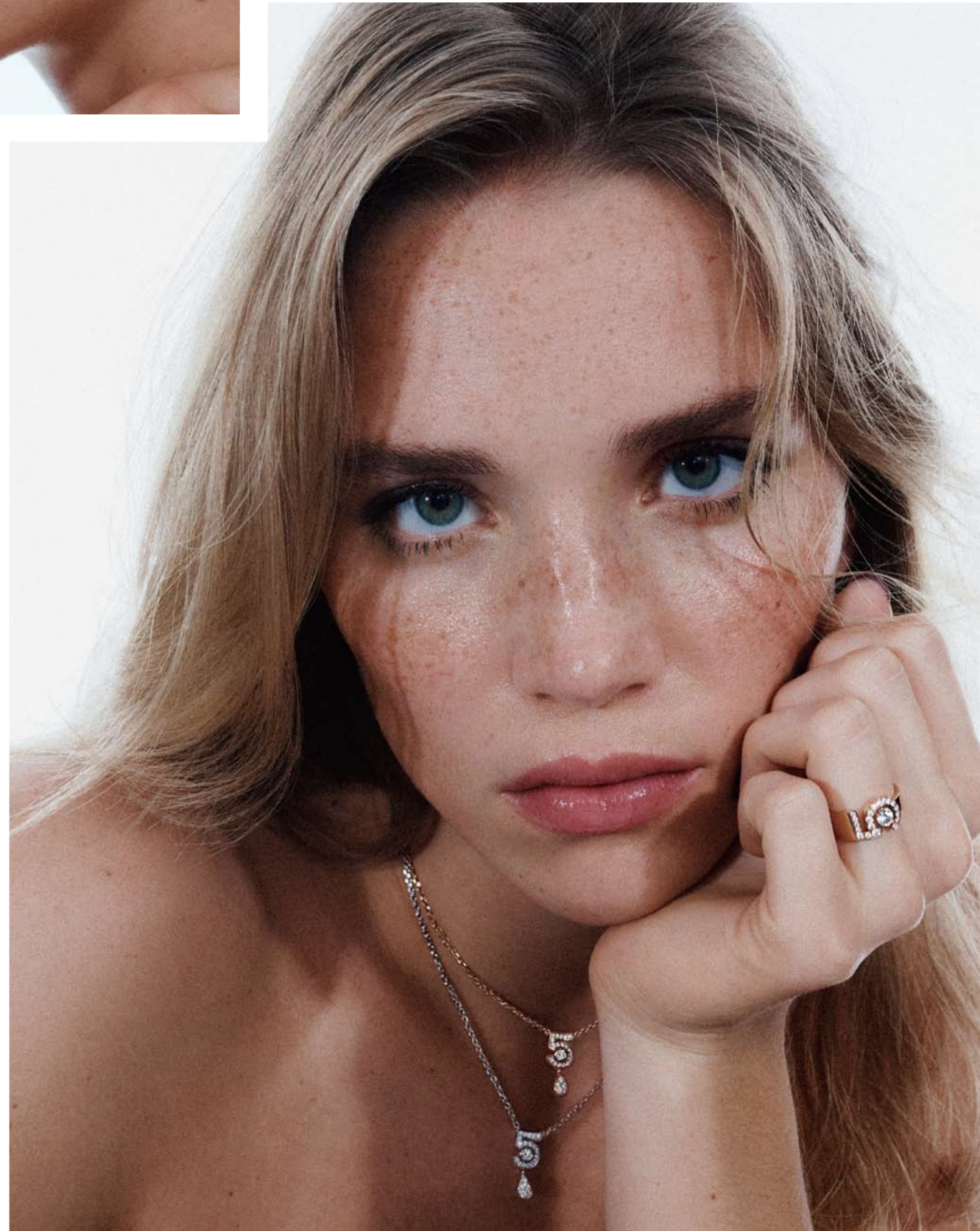
타파니 02-6250-8620  
소유 브라이언 02-541-7077  
해리태크닉 02-514-4010  
루이 비통 02-3432-1854  
다울 맨 02-3280-0104  
카르띠에 1877-4326  
피아제 1668-1874  
볼가리 02-2056-0170  
디미아니 02-515-1924  
타사키 02-3461-5558  
폴로프 02-3442-4706  
프레드 02-514-3721  
반들리프 아펠 1877-4128  
소메 02-3442-3359  
사벨 화인 주얼리 080-805-9628  
다울 파인주얼리 02-3280-0104  
그라프 02-2256-6810  
오메가 02-6905-3301  
로저트워치 02-3479-1403  
롤 포드 02-6905-3534  
이들리에쿠 02-517-3889  
보태가 베네타 1577-8841  
바세롤 콘스탄틴 1877-4306  
말프 로진 컬렉션 02-3467-6560  
블링광 02-3479-1833  
스피드 02-6905-3390  
구찌 02-3452-1521  
파페르제 02-3442-4706  
부샬로네 02-6905-3490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프리다 02-3442-1830  
예거 르쿨트르 1877-4201  
IWC 02-3440-5876

총 2.23캐럿의 7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변형 가능한 ETERNAL N5 01earring, 중앙에 0.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숫자 5 진주를 총 0.20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ring.



화려한 무드를 선사하는 로브를 길게 늘어뜨린 0.1캐럿으로 착용하거나 심플하게 이어 스타드 타입으로 연출 가능하며, 총 2.23캐럿의 7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01earring.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특징인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0.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하고 총 0.21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ETERNAL N5 ring,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총 0.38캐럿의 24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necklace, 총 0.38캐럿의 25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necklace.



# The Etermal Number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을 받아 그 형태의 아름다움과 하우스의 대담한 정신을 담아낸 컬렉션 N5를 소개한다.

장사범 비디오

클립은 이어링 형태로  
0.18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와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싱글 이어링.



1 팔방을 모양의 펜던트와 숫자 5의 우아한  
하모니가 돋보이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XTRAIT DE N5 네크리스. 2 총 1.02캐럿의  
3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사철 화인  
주얼리 애용인의 독보적인 세공 기법을 엿볼 수 있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링.  
3 한편에는 숫자 5를, 다른 한편에는 팔방을  
모양을 표현해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다. 총  
0.1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5개를 세팅해  
우아한 볼륨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비트윈 핑거링  
디자인의 EXTRAIT DE N5 링.



총 0.25캐럿의 라운드 컷 센터  
스톤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총 0.20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ETERNAL N5 링.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링.



0.18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싱글 이어링, 총 0.15캐럿의 5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EXTRAIT DE N5 링.

# Eternal Love

가장 순수한 반짝임으로 표현한 영원의 징표이자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완벽한 수호자, 다미아니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브라이덜 컬렉션.

## Solitaire Ring

가장 순수한 반짝임을 전달하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솔리테어 링이다. 다미아니는 가장 아름다운 솔리테어 링을 위해 완벽한 커팅과 색상, 광도를 구현한 다이아몬드를 제작한다. 이렇게 완성된 매종 다미아니의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브라이덜 컬렉션의 솔리테어 링. 1백여 년에 걸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솔리테어 링을 다미아니에서 더욱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

## Wedding Band

매종 다미아니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상징하는 웨딩 밴드의 전통적 개념을 현대적 주얼리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불륨감 있는 내부 형태와 밴드의 둥근 가장자리를 손가락의 형태와 움직임에 완벽하게 맞도록 고안된 편안한 컷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웨딩 밴드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약속과 서약 같은 가장 중요한 기부와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다미아니는 고객의 기호와 요청에 따라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등 소재부터 작은 다이아몬드 세팅과 다미아니 시그니처 장식, 각인 사인스까지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다미아니 웨딩 밴드 컬렉션과 함께라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문의 02-515-1924 에터너 성영민



플래티넘 또는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미아니 솔리테어 링으로, 컬렉션명은 유티티 차페레 벨 에포크, 마뉴, 마뉴 플 피에, 보타올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웨딩 밴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미아니 웨딩 밴드.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노이웨어 웨딩 밴드.



플래티넘 또는 핑크·옐로 골드 &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웨딩 밴드.



# passion of infinity

신념을 가진 자를 이길 방도는 없다.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컬렉션을 풀어내는 마르코 드 빈첸조(Marco de Vincenzo)가 이끄는 에트로(ETRO)의 네 번째 챗터가 열렸다.

1 리드미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드레이프 스타일의 룩, 2 바닥에 끌리듯 누워있는 듯한 팬츠 스타일, 3 에트로 쇼에서 처음 선보이는 에트로시암로 아이웨어, 4, 6, 10 우회성인 노랑의 프린팅 패턴이 돋보이는 룩, 5 실루엣과 디테일이 남다른 가죽 재킷, 7, 11 새롭고 남성적인, 8 크라이에티브 디테일 마르코 드 빈첸조(Marco de Vincenzo), 9 루스한 실루엣의 롱에어 셔츠를 다룬 에트로시암로 시암로, 11

작년 6월, 에트로(ETRO)의 최초 비가족 구성원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는 술렁거렸다. 그 주인공은 마르코 드 빈첸조. 펜디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거쳐 본인의 레이블로 브랜드를 운영해오던 그는 다양한 경력을 걸쳐 살아 에트로에서의 첫 컬렉션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의 에트로 데뷔작인 2023 S/S 여성 컬렉션, 에트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면서도 에트로 아이키비 어딘가에서 꺼낸 듯 정제성을 잃지 않은 의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극찬받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네 번째 컬렉션을 끝마쳤다. 바로 2024 S/S 남성 컬렉션이다.

마르코 드 빈첸조는 로마에 있는 유럽 디자인 연구소에서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섬유나 패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서 가장 디자인부터 액세서리까지 카타리올을 거쳐서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까지 더해진 것. 이로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빅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그가 만드는 컬렉션이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옷부터 소품까지 빈티지 컬렉션이 그가 의상 하나하나에 작은 포인트와 재미를 더하는 재능이다. 팬데믹 시절 자신의 레이블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그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놀라운 관심과 능력은 지금 에트로 컬렉션에도 발휘되고 있다. 테드스톡 실을 업사이클링해 스웨터와 베스트, 두 가지 제품으로 만든 에트로 카인드 니트(Etro Kind Knits) 실용 컬렉션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런 다재다능한 디렉터가 앞으로 선보일 에트로 컬렉션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에트로의 우화, Etroallegories

2024 S/S 맨즈 컬렉션 또한 소재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다. 바로 에트로알레고리(Etroallegories). 그 시작은 마르코 드 빈첸조가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던 중, 체사레 리피(Cesare Ripa)의 '아이코놀로지(Iconology)'라는 사전 사본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이 책은 17세기의 미터, 자질, 부도덕 등을 묘사한 우화적 이미지로 가득했고, 마르코는 이 과거의 심오한 비밀과 은밀한 의미가 가득한 흥미로운 표현에서 영감을 받은 대작으로 형상화했다. 그것이 바로 2024 S/S 맨즈 컬렉션으로 탄생한 것이다. 오래된 사본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물 이상의 우화적 함의와 패션 산언과 연관된 그의 능력이 놀라운 문. 얼핏 보기에도 다른 사대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우화지만 어쩌면 거기서 마르코는 현대의 단면을 발견했는지 모른다. 디자인을 하고 그에 따라 의상을 제작해 쇼에서 선보이는 것 역시 어쩌면 이미지 메이킹에 의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에트로 컬렉션은 바로 이러한 의도적이고 직관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사본에서 기원한다. 몸에 거의 닿지 않고 유려하게 흐르는 형태와 리드미컬한 패턴을 가득 믹스 매치한 스타일은 편안함과 동시에 신성함까지 풍기는 것. 낙담한 블레이저부터 버뮤다, 점프수트, 피치한 점퍼, 풋볼 튜닉 긴 키디디와 두꺼운 담요로 만든 코트와 조화롭게 어울린다. 더불어 소원(augurio buono), 아름다움(bellezza), 영원(eternità), 정욕(ussúria), 강인함(tenacità)을 표현하는 우화적 이미지를 프린트와 자카드 어가자(에 반짝이는 타치로 기미 해 극적인 느낌을 극대화한다. 반면 하이퍼-벌카-카이드 알라비 슈즈, 스퀘어 토 셰이프의 돌(dol) 슈즈, 인트로사아 백 같은 액세서리를 통해 연속성과 동시에 재미있는 디테일이 더해져 옷을 감상하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는 시암로(Saino)와 페르나시노(Pegaso) 디테일 및 유물들은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최첨단 실루엣과 독창적인 시그니처 디테일이 특징. 오버사이즈 형태와 대담한 구조와 기하학적인 디테일에 자유와 에-지 및 창의성을 상징하는 페가수스(Pegaso) 디테일을 담았다. 이는 고대 신화의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에트로스크린(ETROSCREEN) 스타일의 극치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정식 출시 예정이며, 2023년 11월에는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의 프리뷰 제품을 에트로 부티크 및 일부 인스타그램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에터너 성영민







(위부터 차례대로) 가벼운 마이크로 원사로 제작한 가죽 밑창과 부드러운 워셔드 스웨이드 소재로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웨이드 어반 슬라이드 90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79-1804, 오프화이트, 베이직,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따뜻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지어내는 코트 소재의 슬림은 8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캐주얼 모티브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스포츠 무드와 캐주얼 무드를 강조하는 초경량 코스로 러버 소재의 다들 WARP 신들 1백50만 원 **다들 맨**, 문의 02-3280-0104, 볼륨감 있는 디자인과 반대로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며 수조 전체에 FF 모터브 패턴을 더해 세련된 맛이 돋보이는 팬디 클라우드 슬라이드 80만원대 **팬디**, 문의 02-544-1925, 매끈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배가하며 스트랩을 장식한 밴드와 비클 포인트가 눈길을 끈다. 브라시드 가죽 신들 1백57만원 **프라다**, 문의 02-3443-6047,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H 컷 아웃 장식이 특징이며, 시어링 소재로 재조합된 유근한 멋을 선사하는 이즈미르 슬라이드 1백2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자영**

# Cool Steps

더욱 쿨하고 편안한 발걸음을 위한 서머 맨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편집장 조지영

# enjoy your flight

간편한 휴대성과 빠른 효과로 비행 전후 혹은 항공기 내에서의 뷰티 케어를 도울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리베 세린 스킨프 오일 컨트롤 드라이 샴푸 파우더** 하루 종일 감지 못한 기름진 머리를 보송하게 유지해주는 파우더 향의 드라이 샴푸다. 두피에 직접 도포한 후 1~2분 정도 방치한 다음 미샤하고 가볍게 털어내면 끝. 특수 녹말 혼합물과 카올린 클레이가 유분과 피지를 케어한다. 45g 7만3천원, 문의 1644-4490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헤어 미스트** 오랜 시간 비행으로 땀새내고 끈질긴 헤어에 가볍고 상쾌한 향기를 더해줄 헤어 미스트는 필수. 헤어뿐 아니라 비행기 시트나 침구에 뿌리면 오랜 비행에도 은은한 향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35ml 7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나스 에프터글로우 리워드 블러쉬 플세 비타** 비행 전후 간편하게 생기를 더해줄 블러셔. 립이 달린 크리미한 리워드 타입으로 비크기도 쉽고 맨 얼굴에도 이질감 없이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컬러와 글로우 연출해준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는 것 역시 장점. 7ml 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최속 더 스프레이 차광용 세트** 기존에 있던 더 스프레이의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재주 관해 수를 담은 100% 천연 탈취제, 300ml 리퀴드 미니 보틀, 다스 클리닝 파우치 세트 구성으로 항공기 기준 용량만 담아가고 말 수 있으며, 비행기 좌석이나 담요, 베개 등에 뿌려 향균 효과와 불쾌한 냄새 제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만9천원, 문의 070-4184-1005

**이슬 진저 블라이트** 비행 시 잠이 잘 안 오거나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좋은 향의 이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강 뿌리와 진정을 위한 라벤더, 생기를 위한 제라늄을 조화롭게 블렌딩했다. 목이나 손목에 비르면 은은하게 향을 즐길 수 있다. 10ml 3만2천원, 문의 1800-1987

**연락 전조 데일리 플 맨 엑스플라이트** 액체 반입이 어려운 기내에서 사용하기 좋은 파우더형 페이스 클렌저. 물과 섞으면 풍성한 거품이 일어나며,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며 세도 말끔하게 씻어준다. 오랜 비행으로 세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이상맞춤. 80g 4만원, 문의 1644-4490

**라 메르 크렘 드 라 메르** 건조한 기내에서도 고백없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모베우가 늘 챙기는 크림. 영양감 있고 풍부한 텍스처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며, 건조함을 막아 최악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세안 후 마스크 팩처럼 도포하면 다음 수면을 위한 내피를 밝히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0ml 29만5천원, 문의 02-6971-3293

**아워글래스 베너시 에어브러쉬 컨실러 트러블 사이즈** 기내 파우치를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들고 싶다면 카디안 쿠션보다 작은 컨실러 하나만 챙겨도 충분하다. 특히 이 제품은 고농축 피그먼트로 소량만 사용해도 얼굴 전체 커버가 가능하며 잡티와 결점을 완벽히 커버한다. 1.3ml 2만1천원, 문의 1644-4490

**자방시 뷰티 프리즐 리브르 미니 웨이드 01 무수면 파스텔** 비행기에서 내린 뒤 바로 일정을 소화해야 할 때, 이 파우더 하나만 챙길 것. 맨 얼굴에 사용하면 카메라 플래시를 쬐는 듯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로 보정해준다. 티탑살이나 건조할 때 투명하게 피부를 표현해 건조한 기내에서의 사용도 합적. 4g 4만7천원, 문의 080-801-9500 에디터 **성정민**

# Scent Effect

한 번의 터치로 확실한 기분 전환 효과를 선사하는 향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플로리스 런던 세피모** 1730년(파리) 약 3백 년간 이어온 유서 깊은 영국의 향수 브랜드. 세 피모는 지중해 인물이 많이 있을 때 불어오는 따뜻한 부드러운 바람의 향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베크가 모트, 레온 등 상큼한 향으로 시종해 시타우드의 마스크 같은 우아한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100ml 19만1천원. 문의 1644-4430 **팔라조 노빌레 시크릿 밤부** 이름처럼 대나무 숲을 연상시키는 상쾌한 느낌의 향으로 프레시하고 크리스피한 그린 노트로 시작해 파우더리하고 상쾌한 플로럴 노트를 거쳐 순수함과 생기를 담은 아쿠아틱 노트로 마무리되는 스텝하면서 매력적인 분위기의 향. 100ml 28만원. 문의 070-4352-5203 **바이레도 스킨 로즈 오브 에몽 두리** EDP 영국 국왕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의 개인 발정인 하이그로브 가든에서 영감을 받은 향으로 향기로움 꽃이 가득한 웅장한 장원의 향취를 담았다. 상큼함을 지닌 플로럴 계열의 향이 매력적이며 특베 로즈, 시타우드, 마스크 같은 부드러운 노트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100ml 28만6천원. 문의 080-363-5454 **카멜리아 레드 오 드 파롬**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고양이과 동굴인 팬텀을 향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향사 마틸드 로랑의 노하우를 담은 향수. 꽃과 관능적인 향을 조화롭게 섞고 유쾌한 새로운 어코드를 추가했다. 섬세한 기르네-아에 발향감이 부드럽고 마스카로 마무리되는 매력적인 향을 선사한다. 75ml 20만원대. 문의 1877-4326 **소피드 파롬 하이 소피드 레온 블리시** 그린과 옐로의 갈라리아 선이 매력적인 보틀 디자인에서 추출 한 에센스가 어우러져서 생기와 활력을 붙여주고, 오렌지 플라워 워터와 오이, 밀고 같은 식물을 든유는 김비로 운이로마로 조화롭게 마무리된다. 100ml 16만3천원. 문의 080-980-8888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오 드 파롬** 아무도 없는 땅에서 자라는 한 송이 장미를 표현한 향수로 꽃잎을 아기는 화환의 이층을 담았다. 플로럴 베이스에 우드 노트가 조화를 이루는 풍부하면서도 정중한 장미 향을 담은 우아한 플로럴 계열 향으로 깊은 진정성이 어둠과 잘 어울린다. 100ml 36만원. 문의 02-3479-1688 **조향사 런던 와일드 야생로즈** 야생로즈의 깊은 향이, 안개가 자욱한 들녘과 해가 꽃으로 뒤덮인 언덕, 자연이 차지한 고대 성막 등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길들지 않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리미티드 컬렉션 중 하나. 명량한 베르가모트와 특 쓰는 듯 새롭 한 네뿔의 향이 어우러져 상쾌한 느낌을 준다. 30ml 11만6천원. 문의 02-6971-3228 **에티어 상향민**

# Red Solution

안티에이징의 첫 번째 솔루션이 되어줄 샤넬의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대부분의 피부 전문가는 노화의 징후를 처음 느끼기 시작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 말한다. 이때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수십 년 후 피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성분과 제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딱 맞는 첫 단계 안티에이징 라인이자, 아름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앞선 생각을 하는 샤넬에서 선보이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라인을 소개한다. 우선 N°1 DE CHANEL의 중심에는 샤넬의 시그니처 플라워인 레드 까멜리아가 있다. 프랑스 남 서부의 고자크 지역에 까멜리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샤넬 오픈-스카이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샤넬은 까멜리아 고유의 자연적 속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업생태학과 산림생태학을 활용한 재배 방식을 선택해 놀라운 효과를 선사하는 새로운 성분을 개발한다. 이러한 집약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샤넬 연구소는 차르(Czar)라는 레드 까멜리아 품종에서 얻은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의 놀라운 특성을 밝혀냈다.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첫 단계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피부에 어린 생기와 활력을 선사하고 오랫동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 샤넬 연구소는 약 10년간 세포 노화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세네상스(Senescence)라 불리는 노화의 징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가 느끼기에 노화가 갑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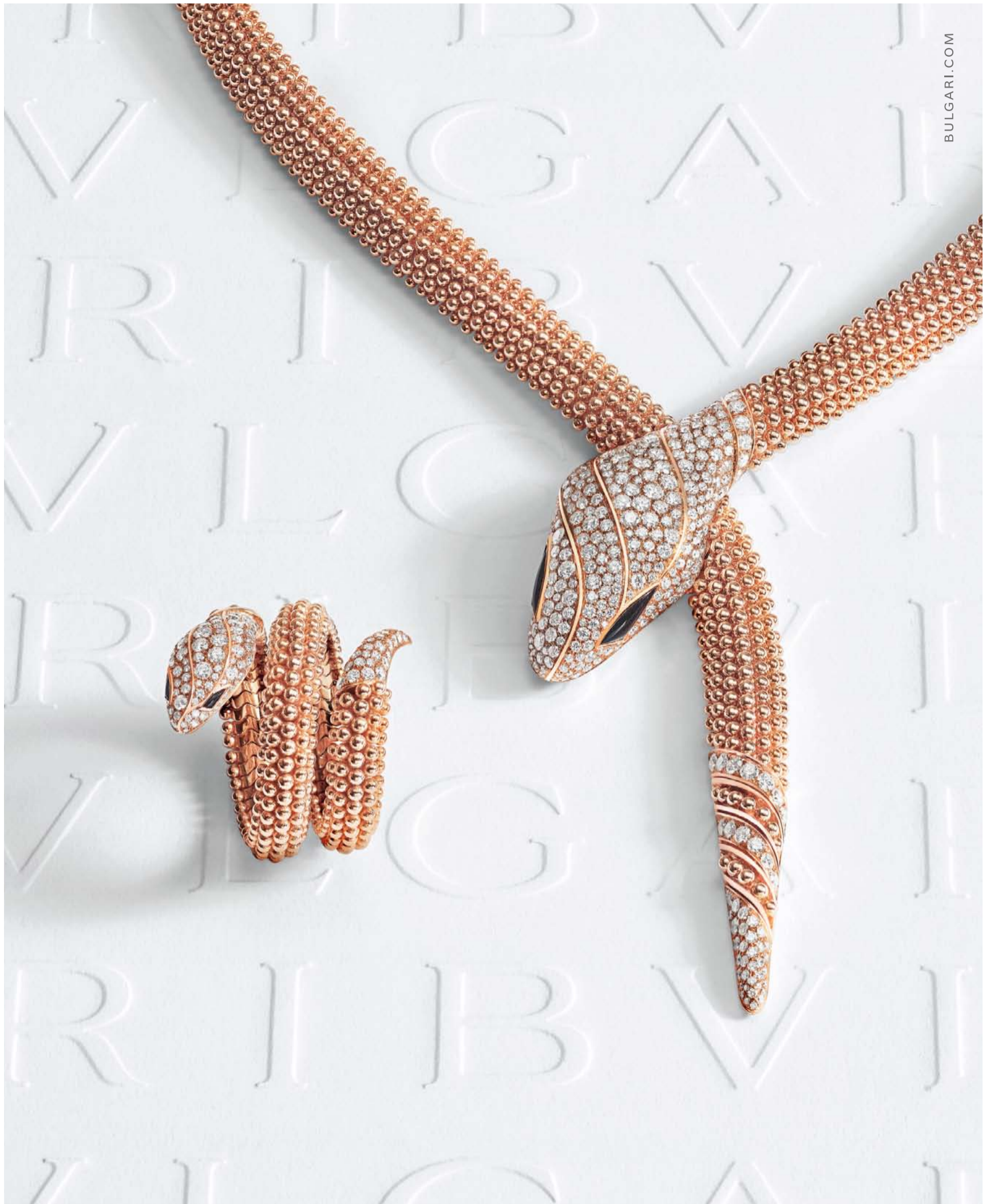
기 찾아온 것 같지만 피부는 스트레스, 자외선, 오염 물질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세포가 활력을 점점 잃으면서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노화를 시작한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제거되지 않은 채 다른 활성 세포의 기능을 방해해 노화를 더욱 촉진한다. 이에 샤넬은 첫 단계 안티에이징, N°1 DE CHANEL 라인을 선보였다.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라인의 뷰티 리추얼 중 핵심 스킨케어 단계인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은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첫 단계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천연 유래 지수 95%와 까멜리아 추출 성분 76%로 이루어져 있다. 바르는 즉시 스며들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가 특징이다. 무엇보다 샤넬은 최초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의 놀라운 효과를 증명해냈다. 눈에 보이는 주름, 피부 광채, 모공 수렴 효과, 탄력, 피부 편안함 등 다섯 가지 노화 징후 완화 효과가 세럼을 바르는 순간부터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이 다섯 가지 노화 징후에 작용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의 효과는 무려 5배가 증가하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티어 윤자영



바르는 즉시 피부에 스며드는 산뜻한 텍스처가 특징으로 사계절 내내 첫 단계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사용하기 제격인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100ml 26만9천원.







BULGARI.COM

**BVLGARI**  
ROMA

SERPENTI  
75 YEARS OF INFINITE TALES